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의 준비 사항

제 225 회 총회(2022)

총회는 무엇인가?

규례서 G-3.0501 은 총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총회는 전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서, 모든 개체교회들과 모든 공의회들 사이에 일치, 공동체, 선교의 결속을 이루어 간다.

전체교회의 증거 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면서, 총회는

- 교회의 표지들 (F-1.0302),
-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문서들 (F-1.0303),
- 그리고 교단의 여섯 가지 큰 목적 (F-1.0304)을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누가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으로 섬길 수 있는가?

총회 대의원은 노회에 의해 선출되고 그들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역장로(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F-1.0403 과 G-3.0103).

자문단은 총회의 구성 교회 또는 공의회 중 한 곳에서 (또는 에큐메니칼 자문단의 경우 총회가 지명한 교단의) 활동 회원이며 자문 역할을 위하여 총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선출된 사람들로서 총회는 그들의 특별한 관점을 경청하고 인식한다(총회 지침서, 총회 진행 규칙 [SR] B.2a)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이 총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겨질 다양한 직무에 적합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은 전체 교회의 사명과 증거를 섬기고 지지한다.

-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은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소유하는 것 외에, 견고한 신앙, 헌신된 제자도, 그리고 구원자와 주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 그들의 삶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인과 그들을 파송한 노회의 공식적인 재가를 받아야 한다.
-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독립적 판단과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고 섬긴다.
- 그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찾고 대표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F-3.0204)
-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을 대상으로 미국장로교 윤리규범을 숙지하는 교육이 마련된다. 모든 업무에서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산 증인으로 용기, 친절, 사랑, 연민을 담아 봉사하게 될 것이다.
-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의 임기는 2 년이다.

총회 회의 시간 계획

제 225 회 총회 회의들은 루이빌 장로교 본부에서 열리는 총회 위원회 대면 회의와 줌을 통한 온라인 본회의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모든 총회 회의는 2022년 6월 17일 금요일과 2022년 7월 9일 토요일 사이에 진행된다. 총회 대의원들과 자문단들은 자신의 총회 위원회 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이 기간 중의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아야 한다. 총회 위원회 배정과 루이빌로 오는 상세한 날짜는 2022년 2월 28일 즈음에 배포될 예정이다. 일정 때문에 배정된 위원회를 변경하거나 원하는 위원회로 변경하려는 요청은 총회진행 규칙에 의거해 받아들일 수 없다.

총회 대의원들과 자문단들은 총회 회의를 위해 루이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될 교역 장로 및 사역 장로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SR B.1.c.). 이번 총회의 현장 회의와 온라인 회의에 모두 참석해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의 투자가 요구된다.

- 대부분의 총회 대의원들과 자문단들은 총회 위원회 회의를 위해 루이빌에서 3박 4일을 보내게 된다. 4개의 특정 위원회에 몇몇 총회 대의원들이 배정될 예정인데, 그들은 루이빌에 이틀 더 머무르며 본회의 1에 필요한 출석 정족수를 구성하게 된다.
- 루이빌에 있는 동안, 총회 대의원들과 자문단들은 총회 위원회 회의와 다른 총회 행사에서 매일 최대 12시간(휴식 포함)을 보낼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식사와 숙박은 상회비 예산을 통해 제공된다.

줌 온라인 본회의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

- 2022년 6월 18일 토요일과 2022년 7월 5일 화요일부터 2022년 7월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본회의 기간에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은 매일 최대 12시간(휴식 포함)동안 예배, 본회의 및 기타 총회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매일 동부시간 오전 11시에 예배를 시작한다.
- 총회 대의원들과 자문단들은 타지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총회에 참여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능하면 노회는 본회의에 직접 참여할 대의원과 자문단을 찾을 계획을 세우기를 바란다.

시간을 내서 **총회 진행 일정**을 주의깊게 검토하길 바란다.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의 책임은 무엇인가?

총회 전과 총회 기간에 대의원과 자문단은 다음의 사항을 해야 한다:

- 총회 회의와 참석자와 인도자를 위하여, 그리고 신실한 의사결정을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 자신을 대의원으로 결정한 노회에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주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노회와 총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노회가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총회에 빠른 시간 내에 등록하고 여행 일정을 예약한다.
- 노회 및 총회 직원과 협력하여 적절한 인터넷 연결 및 총회 회의에 필요한 장비를 확인한다.
- 온라인 회의 기술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서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이 사용할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은 총회 전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안전들에 대해 파악하게 되며, 이후 총회 회의에 참여한다.
- 총회 대의원 및 자문단 윤리 강령과 미국 장로교 안수직 윤리 행동 강령, 미국장로교 성적 부정 행위 정책 및 미국장로교 아동/청소년/취약성인 보호 정책을 읽고 따른다.
- 총회 시작 전에 모든 안전을 검토한다. 특히 자신이 속한 총회 위원회가 검토해야 하는 안전들에 주목한다.
- 총회 대의원 및 자문단을 위한 온라인 총회 교육 공간에서 총회, 절차 및 기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총회 대의원 및 자문단과의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 공동체 형성 과정의 일환으로 총회 위원회 지도부 및 배정된 위원회에 속한 동료 대의원 및 자문대표들과 의사소통한다. 온라인 본회의를 포함한 총회 회의 중에 가족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신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총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파송 노회에 이를 알려 다른 대의원이 대신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예배, 본회의, 총회위원회 회의, 기타 예배와 사역과 분별력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총회 행사에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한다.
- 총회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다.
-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찾고 대표하는 것을 추구하기" (F-3.0204)위해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
-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 우리의 정치의 역사적 원리와 교회 치리를 존중하되, 특히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다' (F-1.0301a), '신앙과 실천, 진실과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F-1.0304a) 그리고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기독교인 개인과 단체의 의무이다'(F-3.0105)는 것에 비추어 말하고 투표하고 실천한다.
- 시간을 정해서 휴식을 취한다.
- 열정, 지성, 상상력, 사랑, 그리고 모든 참가자에 대한 존중으로 총회에 참여한다.

총회가 끝나면,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들은 다음 사항을 행하길 바란다.

- 총회의 결정을 이해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교단과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
- 파송 노회가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제 226 회 총회 전에 먼저 소집되는 총회 특별회의에 참석한다.
- 미국장로교의 사역, 특히 225 회 총회 결정 사항을 알리는 대사로서 활동한다.

COVID-19 전염병에 대한 특별 사항

제 225 회 총회(2022)는 COVID-19 전염병에 의해 변화된 세계에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총회는 이전의 총회보다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으나, 파송 노회, 총회 대의원, 자문단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총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약 170 명의 총회 대의원들과 자문단들이 루이빌의 교단 본부에서 동시에 모임을 하게 된다. 각 총회 위원회는 수요일 오후와 저녁에 다른 위원회와 일정상 겹치게 되는데, 이는 최대 340 명이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모든 대면 총회는 회의 당시의 질병관리센터와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총회 대의원과 자문단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지침과 관계없이 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예방접종 및/또는 COVID-19 테스트 요건에 대한 모든 계획은 보건당국의 조언에 따라 총회가 소집될 때에 더 자세히 공지된다.
- 총회 대의원들과 자문단들은 노회의 지명을 받아들일 때에, 이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면 가능한 한 빨리 파송 노회에 통보해 다른 대의원을 찾아 총회에 참석하도록 한다.
- 노회는 주 대의원이나 자문단이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비 대의원이나 자문단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총회 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총회가 개최하기 전, 담당자와 논의해 총회 회의 일시와 장소를 변경한다.